

#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의복 디자인 연구

—안락감, 보호성, 다목적 활용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othing Desig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김 영 인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Full Time Instructor: Young In Kim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A. 아동복의 변천 B. 학령기 아동의 특징 C. 학령기 아동복의 디자인 요소 III.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방법 B. 연구의 한계점	IV. 작품구상 및 제작 A. 작품 구상시의 고려사항 B. 디자인 및 작품제시 1) 보호기능측면의 놀이옷 디자인 2) 다목적 활용측면의 놀이옷 디자인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set of functional and creative clothing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mphasizing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athletic developments in children. At the same time plans were made to protect the child from an environment which presents obstacles or dangers to children's activities.

The followings are criteria for clothing design of this study.

- 1) Ease for comfort
- 2) Protection from abrasion
- 3) Protection from snagging
- 4) Protection from soiling
- 5) Repose

Functional and poly valant styles and materials were chosen so that a child can easily change his clothes in different styles, and efforts in clothing are being made to meet the various demands of children's activities.

## I. 서 론

의복은 신체적 보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경우에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생활하므로 의복은 어떤 연령 층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중요하다.

어린이의 의복은 출생하여 아동으로 성장하고,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 인격발달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학령기 어린이는 활동이 왕성하고 운동에 관심이 높아 움직임에 자유롭고 안락감을 갖춘 의복착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의복에 있어서도 종전의 성인복 축소형과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 연령에 따른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 감각적, 지적능력의 발달, 운동발달 및 사회적 발달 등의 특성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 어린이에게 있어서 의복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실제 아동복 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욕구 및 유행을 고려한 기능적이며 독창적인 아동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동복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정의 의복의 안락감 측면에서 성인복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둘째, 학령기 아동복의 심리적, 신체적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며, 셋째, 이를 토대로 기능적이고 독창적인 아동복을 제작하여 아동복 분야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안락감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의 변천, 학령기 아동의 특징 및 신체적, 심리적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A. 아동복의 변천

아동복의 역사적 변천과정 중 먼저 의복에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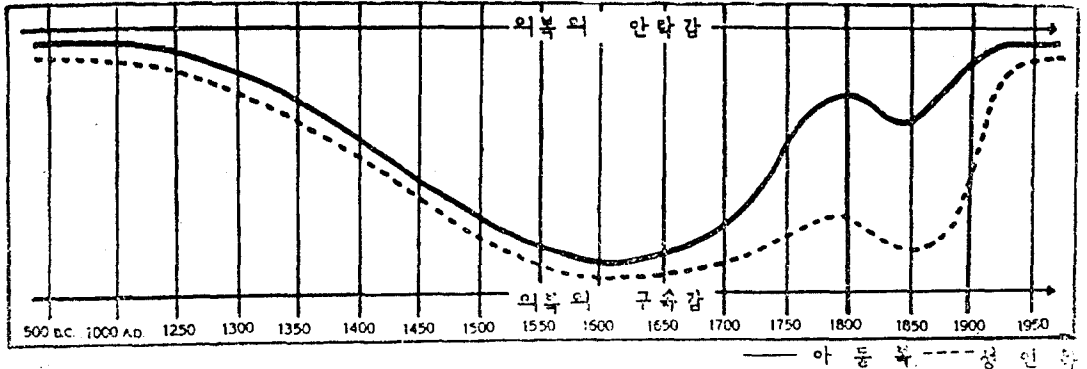
난 안락감을 Linda<sup>1)</sup> 및 Yvonne<sup>2)</sup>의 진술을 중심으로 성인복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한 문화, 사회 및 시대적 영향이 반영된 아동복에 나타난 신체적 안락감 및 구속감을 성인복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고대와 중세에는 아동복과 성인복의 형태가 간단하고 활동적이었으며 비교적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의복의 안락감이 높은 형태였다.

한편,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의복은 점차 신체의 활동을 제지하게 되었으며 의복에서 오는 구속감의 정도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는 어린이들에게 엘리자베드 러프, 고래뼈 코르셋, 짝끼는 소매, 높은 구두, 가발 등 성인복의 축소형을 입혔으며 중·상류층 어린이들은 부모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전시품 노릇을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어린이들은 다시 안락감을 되찾았다. 즉, Jean Jacques Rousseau는 어린이 의복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루소는 어린이들도 독립된 인간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어린이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방식뿐 아니라 지적이고 문화적인 교육에까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존중받게 되었으며 성장과 놀이에 방해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일부 귀족층의 자녀들은 성인복의 축소가 아닌 그들 자신의 복장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것이 아동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어린 남아에게 입히던 선원복 모양의 옷은 부드러운 천으로 된 무릎부분이 헐렁한 바지에 넓은 천을 허리에 감아서 묶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



<그림 1> 아동복과 성인복에 나타난 의복의 안락감(Linda, M., The way we wore, 1978, p.12)

러한 편안한 복장은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19세기 초에는 몸에 꼭끼는 큐롯, 단추가 목부분까지 높이 달린 망토형태, 그리고 어두운 색상의 의복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아동복에 있어서 안락감은 1920년경 나타난 성인복의 경우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났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아동복과 성인복은 서로 그 형태에 영향을 주며 점차 활동적이며 안락한 오늘날의 의복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그 예를 먼저 남성복에서 살펴보면 18세기 후반에 남자 어린이들의 긴 바지 착용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상류층 남성들은 무릎까지 오는 바지에 스타킹을 착용하였으며 단지 노동자와 선원들만이 긴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귀족계급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하류층 의복의 특징을 곁들이는 것이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중류층 사립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급격히 전파되었다. 이 긴바지의 복장은 40년 후인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사교계 남성들에게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칼라형태에 있어서는 1870년 소년들이 착용하던 부드럽게 접혀진 칼라형태가 1920년경 남성복의 평상복에 받아들여져 남성복의 딱딱하게 세워진 wing 칼라는 야회복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변화물 보이고 있다.

여성복에서는 19세기말 소녀복장인 가슴에 여유가 있고 허리선이 엉덩이 위치까지 내려온 스타일이 35년 후인 1920년에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0세기초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유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의복에 있어서도 활동의 자유로움, 가벼움, 안락감이 중시되었다. 의복디자인도 심미적인 면에 덧붙여 실용성과 기능성이 고려되어 여성복과 아동복이 서로 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 것이라고 보겠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편직물 등 신축성 있는 소재 및 화학섬유의 발달로 새로운 의복형태의 판리가 용이한 아동복이 생산되고 있다. 현대는 전시대의 아동복에서 보이던 무겁고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제거된 짧은 소매, 티셔츠, 짧은 치마 및 바지 등으로 변하여 활동에 제약을 덜 받으며

편안한 남·녀 공용의 의복이 주로 입혀지고 있다.

## B. 학령기 아동의 특징

학령기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6세에서 12세까지를 중심으로 하였다<sup>6)</sup>. 이 시기 아동의 신체비율은 성인과 거의 비슷하며 신체구조의 변화는 주로 팔과 다리의 길이에 따른다<sup>7)</sup>.

Piaget<sup>8)</sup>에 의하면 이 시기는 심리학적 발달면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이나 인지적 발달면에서는 주위환경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지적탐색이 활발한 매우 활동적인 시기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운동이나 게임 그리고 지적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된다.

Froebel<sup>9)</sup>은 아동에게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경험이므로 아동은 조용하고 조화된 환경 속에서, 마음놓고 뛰어 놀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많은 친구들과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10)</sup> 친구들과 사이에서 또래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그 집단의 의복이나 행동 등을 모방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으로 보상된다.<sup>11)</sup> 따라서 매력적이지 못한 아동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므로 공격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학교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sup>12)</sup>.

활동과 휴식, 안정과 모험에 대한 욕구도 학령기 아동의 특징이다. 이들은 항상 움직이며 하는 반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며, 또한 안정된 것을 원하는 반면 위험에 부딪쳐 보고 싶어한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들이 학령기 아동복에 영향을 준다.

Ryan<sup>13)</sup>은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인 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운동에 방해가 되는 의복은 싫어하며 단순하고 편안한 의복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강혜원<sup>14)</sup>은 학령기 아동의 적절한 의복은 그들에게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주어 균형잡힌 성격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이들은 웬만한 의복은 혼자 입을 수 있으나 아직은 입고 벗기 쉬운 의복이 중요한 시기이며 의복에 대한 흥미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령기는 아동의 성격형성 및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며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놀이와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된 적절한 의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다.

### C. 학령기 아동복의 디자인 요소

학령기 아동에 대한 디자인의 선행연구 결과물 색상, 질감, 안락감, 장식선호 및 기능적 의복형태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색상은 의복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시각적 요소인 동시에 아동의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동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밝은 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urlock<sup>12)</sup>은 저학년 아동이 밝은 색을 좋아하고 고학년은 옅은 색을 좋아하며, 그들이 선호하는 색의 옷을 입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Hunt<sup>13)</sup>은 아동의 색채기호성은 색채간에 현저한 유의차가 있으며 연령과 색채의 배치순위에서 9~10세에는 주황색과 녹색을 좋아하고 한편 가장 싫어하는 색은 보라색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어린이에 대하여는 1984년 박정애<sup>14)</sup>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들은 노랑색을 선호하며 그들이 많이 착용하는 티셔츠색과 입고 싶은 옷색은 청색계통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의 색상은 실제 아동들의 선호도가 낮은 빨강색이 많이 나타났다.

의복질감의 선호에 대하여 Flaccus<sup>15)</sup>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하며 거칠은 질감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아동복에 있어서 의복의 질감은 어린이에게 만족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의복의 안락감에 대하여 Helen<sup>16)</sup>에 의하면 안락감은 모든 연령층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활동이 많은 학령기에게 중요하다. 학령기 아동의복에 있어서 안락감이란 옷감과 재단, 몸에 잘맞는 것을 의미한다. 옷감은 아동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따뜻함과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하며 size가 너무 큰 옷은 아동의 활동에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애<sup>17)</sup>의 연구결과에서도 아

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활동에 편안한 옷으로 나타나 활동성은 아동복생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장식선호에 있어서 Ryan<sup>18)</sup>은 Miller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8세 아동은 장식물을 좋아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식적인 선호는 줄어들게 되며 색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Tate<sup>19)</sup>는 저학년 아동은 귀엽고 예쁜장식을 좋아하는 반면 고학년 아동은 평범한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기능적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신체장애아의 복에 관한 문헌을 다음에 고찰하였다.

배창연<sup>20)</sup>은 신축성 있는 직물을 사용하여 상의는 어깨와 가슴부위에 충분한 여유분을 두어 활동이 자유롭게 하고 하의는 허리둘레를 고무줄로 처리하여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고 착용모습이 좋은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소매형태에 대하여 Scott<sup>21)</sup>은 set-in-sleeve는 블라우스의 팔을 올리거나 댈 때 팔과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옷이 심하게 당겨져 진동둘레가 찢어진다고 하였으며 김혜경<sup>22)</sup>은 팔과 어깨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소매형태로서 raglan sleeve와 cap sleeve를 제시하였다.

김혜경<sup>23,24)</sup>의 신체장애아 의복연구에서 장애아의 의복중 상의에서 잘 헤지는 부위는 소매끝과 팔꿈치였으며 하의에서는 무릎, 엉덩이 부위였다. 장애아에 편리한 의복형태 중 가장 좋은 허리의 처리방법은 고무줄이었으며 트임의 위치는 앞트임이 가장 편리했다. 착용하기 편리한 목둘레는 칼라 없는 U형, V형 및 둥근 목둘레의 순이었으며 편리한 트임위치는 상의는 반앞트임, 하의는 앞트임이며 어깨트임은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트임부속품은 지퍼와 스냅단추였다. 소매커프스형태는 고무줄, 또는 벨크로로 처리된 것이 커프스 없는 것과 별 차이 없이 다루기 쉬웠으며 가장 불편한 것은 단추달린 커프스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A.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중 6~8세를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는 놀이동작관찰 및 사진을 통한 놀이동작분석→보호부위분석→기본형태→착의 관찰→제작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동작 관찰 및 사진을 통한 놀이동작 분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 및 의



ㄷ. 만드는 것은 관찰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의지를 일깨운다.



b. 어린이의 상상력은 대상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도 한다.



c. 균형을 잡는 것은 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다.



d. 점프는 날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며 높이에 대한 신체의 경험을 제공한다.



e. 오르는 것은 호기심을 통하여 관찰과 성취의 경험을 갖게 한다.

f. 미끄러지는 것은 중력과 가속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그림 2〉 아동의 놀이동작 관찰(종합디자인 1985.5)

〈표 1〉 장소에 따른 어린이의 놀이, 동작, 위험 및 요구

장 소	실 내		욕		외	
놀 이	그림 그리기 말 타기 집 짓기 기차 놀이	샤 물 치 낮	워 장 잠	공 놀이 철 평형	담, 나무에 오르기 미끄럼 타기	물, 모래장난 풀밭에 앉기 동물과의 놀이 그림 그리기
동 작	의자에 앉기 쭈그리고 앉기 엎드리기 기어가기	휴 식	발로 차기 계단 오르내리기 뛰 기 매달리기	기어 오르기 걸터 앉기 미끄러지기 뛰어내리기	바닥에 앉기	
위 험	마 찰 더러워짐	-	마 찰 서로 부딪힘 넘 어 짐 더러워짐	마 찰 나뭇 가지에 걸림	더러워짐	
요 구	안 락 감 부드러움 가 벼 움 마찰방지 더러움 방지	안 락 감 모 방 창 조	안 락 감 가 벼 움 부드러움 견 고 함 마찰방지	안 락 감 가 벼 움 마찰방지 걸려 찢김방지	가 벼 움 더러움 방지	

복을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아동이 지닌 다양한 욕구 중 특히 서로 상반되는 욕구(움직임↔휴식, 안정감↔위험에 대한 도전, 모방↔창조)에 의해 나타나는 놀이장소를 실내, 옥외로 구분하였다. 각 장소에서 아동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동작을 관찰하였으며 놀이의 사진을 <그림 2>와 같이 수집,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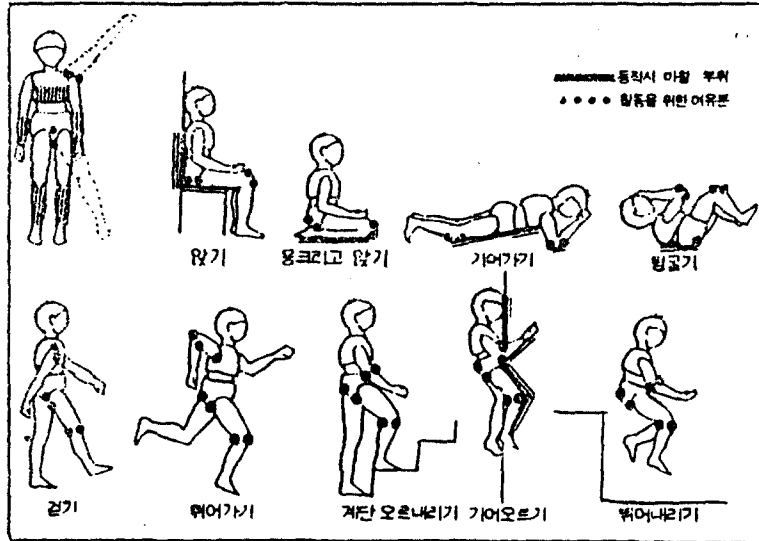
놀이동작의 관찰 결과에서 아동의 놀이를 5가지 측면에서 다른 상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상황에

나타난 놀이, 동작 위험 및 요구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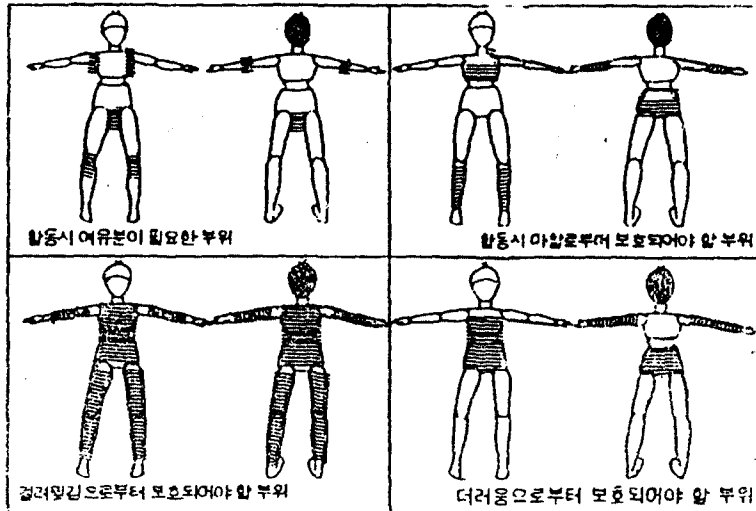
2. 보호부위 분석

<표 1>에서 분류된 5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기본동작들과 동작시의 안락감을 위하여 의복의 여유분이 필요한 부위 및 마찰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부위를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과 <그림 3>의 분석결과 아동의 활동시 여유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위는 겨드랑미와 밑위이며, 한편 마찰이 많은 부위는 팔꿈치, 무릎, 엉



<그림 3> 동작시 필요한 여유분과 마찰부위



<그림 4> 아동의 활동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위

〈표 2〉 아동복 제작시 고려요인 및 소재

고려요인	여유분	마찰로부터 보호	걸려 찢김으로부터 보호	더러움으로부터 보호	휴식, 오락
부위	거드랑이 팔꿈치 밑위 무릎	가슴 팔꿈치 엉덩이 무릎	어깨 가슴 등 팔 무릎	가슴 팔 엉덩이	—
소재	부드러움 가벼움 신축성	견고함 신축성	매끄러움 견고함 가벼움	일회용 방오, 방수가공	부드러움 유연함
작품에 사용한 소재	안이 기모처리 된 면 트리코트	면 트리코트 면 폴플린 스폰지 십	투습 방수가공 직물 재거 반사성 직물	부직포 tyvek	면 테리타월지

덩이었다. 이 결과는 김혜경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복 제작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부위를 〈그림 4〉와 같이 활동시의 4부위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휴식, 즉 움직임에 상반되는 아동의 필요욕구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5가지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각 상황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였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기본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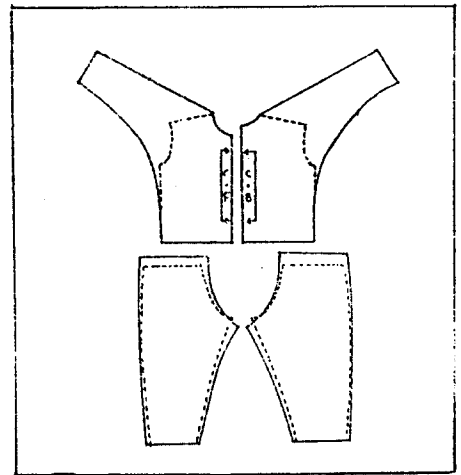
안락감을 주며 활동시 장애를 받지 않는 단순한 의복형태를 구상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행성을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둥근목들레의 변형된 Kimono sleeve의 상의 및 허리와 밑위 부위에 충분한 여유분을 준 하의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4. 착의 관찰

〈그림 5〉에서 제시된 상·하의 기본형의 패턴을 사용하여 제작된 아동복의 착의관찰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활동시 팔·다리 동작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제작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한 상·하의 기본형태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 적절한 5가지 유형의 아동복을 제작하였다. 제작에 특히 고려한 점은 실내·육외의 놀이장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의복의 안락감, 보호성 및 다목적 활용성의 측면이다.



.....기본선 — 수정선

〈그림 5〉 작품제작에 사용한 기본형태 (ENSAD pattern 사용)

B.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로, 아동복의 기능적 측면의 실험연구에 관한 자료 및 문헌이 적어 과학적인 측정도구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둘째로, 기성복 업체나 소비자가 이 논문을 참고로 아동복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패턴치수의 제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셋째로, 제작된 의복을 아동이 실제 착용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이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6〉 기본형의 착의 관찰

#### IV. 작품구상 및 제작

##### A. 작품구상시의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 구상된 아동복의 디자인 및 제작시 고려된 점을 의복형태, 색상, 소재 및 장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의복형태

단순하며 기능적이고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서로 맞추어 입을 수 있는 다목적 활용성 남·녀 공용의 의복을 위주로 구상하였다. 그 다목적 활용을 위한 변형은 조작이 간편한 기계스냅 단추를 사용하였다. 안락감 및 활동성의 측면에서 상의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옷이 팔려 올라가지 않으며 하의는 다리를 마음껏 벌려도 활동의 장애가 없도록 거드랑밀과 밀위 부분에 여유분을 주어 변형된 패턴으로 제작하였다. 허리는 전체 및 부분고무줄로 하여 입고 벗기 쉽게 하였으며 여밈은 지퍼와 기계스냅 단추로 처리하여 아동 스스로 조작하게 하였다.

##### 2) 색 상

학령기 아동의 기호에 맞는 부드러운 색조의 황색, 주황색의 밝은 단색계를 선택하였으며 가랑잎색, 올리브색, 흰색 및 검정을 배합하였다.

##### 3) 소 재

평범한 것을 피하고, 새로움, 견고함, 보호성, 편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였다.

##### 4) 장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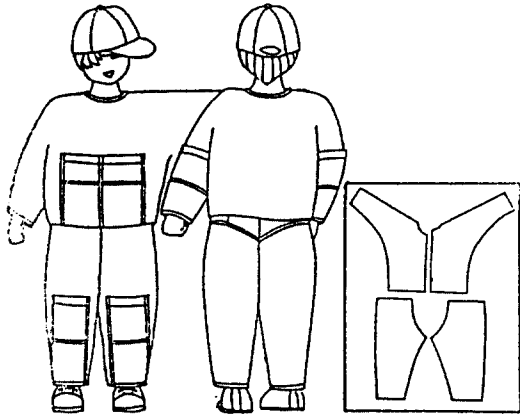
주머니와 보호용 덧침으로 장식성을 가미하였으며 장식형태의 기본단위는 정사각형으로 하여 일정한 비례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구성하였다. 주머니는 스냅단추를 사용하여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 B. 디자인 구상 및 작품

구상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기능 측면과 다목적 활용측면의 착용목적에 달리는 5가지이며 각기 디자인과 패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을하였다. 또한 각 디자인으로 제작된 아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1) 보호기능측면의 놀이옷 디자인

<디자인 I> : 약간 짙은 노랑색 면트리카트직으로 상·하의를 제작하였다. 팔꿈치, 무릎, 엉덩이, 가슴부위에 스펀지 심이 들어간 장식접용의 주황색 보호천을 단끝까지 덧대어 주었으며 이것은 동시에 주머니로도 사용된다. 바지는 허리를 고무줄로 처리하였다.



<그림 7> 심한 운동이나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동복

<디자인 II> : 바위나 나무에 걸려 찢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옷 전체를 매끄러운 소재로 하였다. 올리브색 사제절용 투습방수직물이며 주머니는 노랑색 재귀반사성직물로 밤에 자동차의 불빛을 반사하여 보호작용을 한다. 주머니 여밈은 지퍼로 하여 걸림을 방지했으며 어깨의 고리는 단추로 연결하여 뗄 수 있다. 겨드랑미와 바지 옆부분은 검정색 면 포폴린으로 무릎 대어 땀의 흡수 및 활동성을 좋게 하였다. 바지 허리와 바지단, 상의 허리 뒷부분과 소매부리는 고무줄 처리하여 입기 쉽게 하였으며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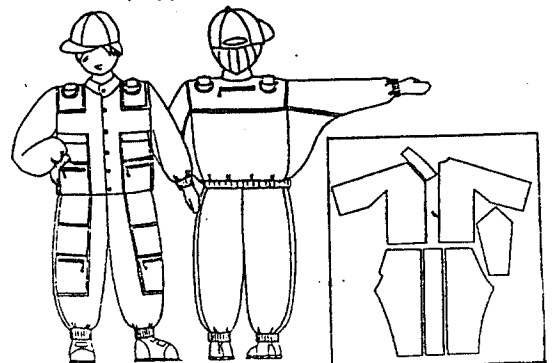
<디자인 III> :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옥외에서 모래장난을 할 때 입는 Tyvek 을 사용한 더러움 방지 일회용 의복이다. 전체를 한장의 패턴으로 하여 제작이 용이하다. 여밈은 가슴부분과 허리 옆을 작은 스냅단추로 하였다.

2) 다목적 활용측면의 놀이옷 디자인

<디자인 IV> : 연한 주황색 트리카트 직물로 된



<그림 8> 디자인 I의 작품사진



<그림 9> 걸려찢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복



<그림 10> 디자인 II의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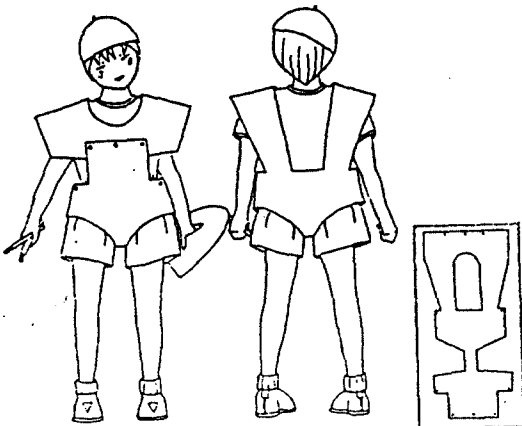
티셔츠의 상의는 안단을 밝은 주황색 변포플린으로 배합하여 기계스넵단추로 길이를 조정했을 때 가운데 주머니가 있는 귀엽성을 띤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바지는 가방일색 변포플린으로 뒤를 뒤 전체와 앞 1/3가량 고무줄 처리하였으며 앞트임은 지퍼를 달아 주었고 지퍼고리가 걸터 내려오지 않게 안쪽으로 덧단을 대어 단추를 달아



<그림 12> 디자인 III의 작품사진

주었다. 양 옆의 주머니가 단추로 연결되어 밟힐 수 있으며 주머니 안쪽은 상의 안단과 같은 주황색 포플린으로 하였다. 티셔츠를 안으로 집어넣고 어깨 끈을 앞 뒤의 스넵단추로 연결하였으며 맨 수 있는 주황색 주머니(디자인 V에 적용)를 달아 주었다.

<디자인 V>: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때 입는 부드러운 흰색 타월지로 된 combinaison이다. 여민은 어깨에 있어 입고 벗기 쉬우며 앞 몸판에 일정하게 기계스넵단추를 달아주어 4개의 다른 색상의 작은 사각형 주머니를 마음대로 선택, 이동할 수 있어 옷 자체가 놀이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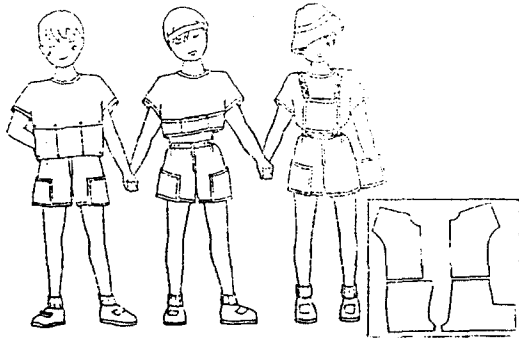


<그림 11> 더러움 방지 일회용 놀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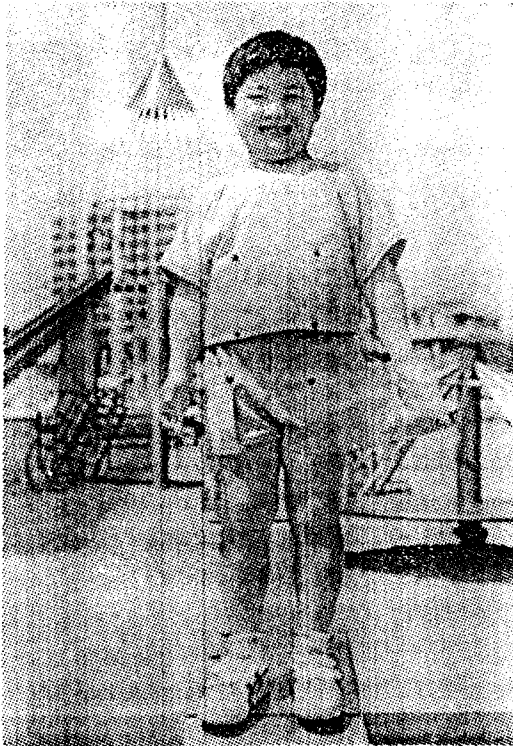
##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요구에 맞는 보호기능 측면이 고려된 안락한 아동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결과와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에게 놀이는 중요한 경험과 욕구 표현 수단이 되므로 학령기 아동의 의복은 놀이유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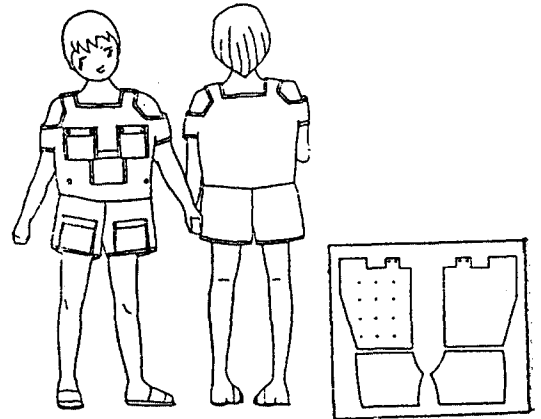


<그림 13> 산책이나 조용한 놀이를 할 경우 입는 놀이옷



<그림 14> 디자인 IV의 작품사진

따라 그 놀이에 필요한 동작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놀이환경에서 발견되는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므로써 아동 자신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세부적 사항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겨드랑 밑과 밑위부위의 여유분을 가장 고려해야 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찰이 가장 심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부위를 보호하며 그 외에 걸터 찢김, 더러움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림 15> 오락을 위한 휴식복



<그림 16> 디자인 V의 작품사진

둘째, 이 시기에 형성되는 독립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입고 벗기 쉬운 의복이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형태로는 칼라가 없이 쉽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U형, V형 및 둥근 목둘레, cuffs가 없거나 고무줄로 처리된 소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고무줄 처리된 허리, 앞트임의 하의, 지퍼나 적당한 크기의 기계스냅단추를 사용한 여밈처리 등이다.

셋째, 아동의 기호에 맞는 색상, 소재, 장식의 사용으로 의복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착용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원만한 성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밝고 고운 단색계열의 조화로운 배합으로 색상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며, 소재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견고하여 어떠한 마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생면에서 더러움이 쉬타지 않게 방오가공처리가 되어 있고 땀은 쉽게 흡수 및 발수되는 직물이어야 하며 관리면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세탁할 수 있고 다림질 수고도 덜 수 있어야 한다. 장식은 연령에 맞는 것으로 단순하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보호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 고려된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며 아동들이 좋아하는 주머니는 있는 것이 좋다.

넷째, 기타 유행을 고려하여 의복에 새로움을 줄 수 있으면 좋다.

본 연구는 6~8세를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아동복 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학령기 아동의 실제 의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일련의 활동복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기초로 보다 과학적인 학령기 아동복의 후속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제작된 의복의 타당성 실험연구와 기성복업체 및 소비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정확한 패턴치수의 제시가 보충되어야 하며 또한, 본 연구의 의복은 6~8세를 대상으로 한 활동복 위주이므로 정장용 의복디자인 연구 및 9~12세를 대상으로 한 학령기 아동복 디자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Linda, M., *The way we wo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8, pp.7~13.
2. Yvonne, D., *Le costume image de l'homme*. Paris: Albin Michel, 1976, pp.170~176.
3. 서봉연, 이순형 공저,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6, p.123.
4. 김혜경, 강혜원 공저, 어린이의 의복.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105.
5. 서봉연, op. cit.(1986), p.51.
6. ibid, p.24.
7. ibid. pp.421~422.
8. Tate, M.T. and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1, p.255.
9. Lerner, R.M. & Lerner, J.V., "Effects of Age,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Child Peer Relations Academic Performance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2, No. 6, 1977 pp.585~590.
10.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ashington, Inc., 1966.
11. 김혜경, op. cit. p.106.
12.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A New York Times Company, Arno Press Inc., 1929, p.477.
13. Hunt, L., "A developmental study of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clothing preferenc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Vol. 24, No. 1, 1959, pp.3~47.
14. 박정애,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의복선호에 관한 일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15. 김혜경, op. cit. p.8.
16. Helen, G.C. and Verna, M., *Clothing Selection*(2nd Ed.) Philadelphia: I.B. Lippin-

- cott co., 1969, p.54.
17. 박정애, op. cit,
  18. Ryan, op. cit.(1966), p.232.
  19. Tate, op. cit.(1961), p.261.
  20. 배창연, “지체장애아의 의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21. Scott, C.L., “Clothing Need of Physically Handicapped Homemaker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5, No. 8, 1959. p.710.
  22. 김혜경, 강혜원, 김순자, 장승옥, “신체장애아의 장애부위에 따른 특수의복 연구”, 연세논총 제20집, 1983, p.337.
  23. ibid, p.330.
  24. 강혜원, 김혜경, 김순자, 박문혜, “신체장애아의 특수의복을 위한 실험연구”, 연세논총 제19집, 1982, p.396.